Vol. 69| 2005.10.19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원/달러 환율, 1,050원 돌파
-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물류 대란 우려

경영 노트
- '붉은 여왕' 경쟁 이론

사회 트렌드
- 한국, 투명성지수 149개 국 중 40위
- 광고 잠입(Ad Creep)

저널 브리프
- 美·日 정부의 에너지 절약

洗心錄
- 비즈니스에서의 정치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원/달러 환율, 1,050원 돌파

■ **(현황) 엔/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115엔대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달러 강세가 재현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3개월 만에 1,050원대를 재돌파**

- 10월 18일 현재 달러 대비 유로 및 엔화는 전년말 대비 11.9%, 12.9% 절하된 1.1942, 115.83을 기록하는 등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달러 대비 원화도 10월 18일 현재 1,051.5원으로서 4월말의 연중 최저치(997.1원)에 비해 5.5% 절하된 상태임

■ **(원인과 전망) 최근 달러 강세의 이유는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 때문이나,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는 2006년 1분기부터는 다시 약세를 보일 전망**

- 당초 美 금리인상은 4%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연준의 인플레 억제 의지가 워낙 강력해 4.5~5%까지 인상될 것이 유력해짐
- 그러나, 이러한 금리인상은 그린스펀 의장이 퇴진하는 2006년 1분기까지 마무리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미국 무역수지 적자와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가 再대두되어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큼

□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물류 대란 우려

■ **(현황) 10월 19일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63%가 파업에 찬성함으로써 총파업 가결**

-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덤프연대와 레미콘노조의 파업도 맞물려 있어 파업의 영향이 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원인과 전망) 화물연대는 면세유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한 입장이어서 물류대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쟁점 사항인 면세유 지급 요구가 산업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도로 운송이 정지할 경우 철도, 개인화물차, 그리고 연안해운 등의 대체 운송 수단으로는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2003년의 물류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 '붉은 여왕' 경쟁 이론

■ **기업은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경쟁의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블루오션 전략과는 상반된 것임**

-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는 '붉은 여왕(女王)'이 나오는데, 그녀는 힘껏 달려도 주변 경치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됨
- 기업이 속한 환경도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움직이며, 결국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쟁의 속도에 적응해야 함
- 150개 기업의 지난 40년간 실적을 살펴본 결과 경쟁을 견뎌 낸 기업이 지리적 이점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한 기업보다 생존율이 높았음

■ **단기적인 편안함보다는 경쟁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동력 추구가 필요**

- 경쟁에서 빠져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화를 통한 학습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혁신이 이뤄지기 어려움
- 따라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 없는 시장을 찾기보다 기업간 경쟁 그 자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조직 내부의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자신이 처한 환경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됨

붉은 여왕 (Red Queen) 경쟁 이론	•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환경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진보가 둔화되는 것과 같이, 기업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을 통해 스스로 단련해야 한다고 설명 •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전략과 조직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윌리엄 바넷 교수가 1996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
블루 오션 (Blue Ocean) 전략	• 기업은 경쟁 기업과 싸우지 말고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경영 전략 • 프랑스 경영대학원(INSEAD)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가 제시한 이론으로, 최근 국내에서 크게 각광

□ 한국, 투명성지수 159개 국 중 40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공공 부문 투명성은 전 세계 159개 국 중 40위로서, 작년(146개 국 중 47위)보다 7계단 올랐지만 아시아 주요 국보다는 여전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나라 투명성은 10점 만점에 5.0점이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개 국 중에서는 22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했음
- 아시아 주요 국가의 투명성은 싱가포르가 9.4점(5위)으로 가장 높았고, 홍콩(15위, 8.3점), 일본(21위, 7.3점), 대만(32위, 5.9점), 말레이시아(39위, 5.1점) 등이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음

■ **세계 각국이 부패 문제에 주목하고 그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임**

- 지난해 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 7.0이 넘은 국가들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000달러였음. 반면 우리 나라는 절반 수준인 소득 5,000달러대의 국가들과 부패 순위를 다투고 있음

□ 광고 잠입(Ad Creep)

■ **우리의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든 광고들이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포위 광고(ambient advertising)라고도 함**

- 커피 잔, 빌딩 벽, 골프 홀 바닥, 심지어는 자동차 자체가 통째로 광고판이 되기도 함
- 캘리포니아의 세 개의 신생업체들은 일반인들의 차를 광고 도구로 바꾸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음

■ **더 많은 광고에 노출될수록 소비자들은 광고에 덜 주목하게 됨**

- 결국 광고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는 광고에 더 무관심해지고, 광고업자들은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광고를 고안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美·日 정부의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운동이 한창인 미국) 미국은 행정부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부시 대통령까지 에너지 절약 운동이 한창임**

- **(정부의 에너지 절약 홍보)** 미국 에너지부는 시민단체인 '에너지절약연맹'과 함께 인터넷과 안내 책자를 통해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악관 직원들에게는 자전거 출퇴근, 장관들에게는 소형 여객기 대신 기차 출장을 이용하라는 등 에너지 절약을 종용하고 있음
- **(부시의 노력)** 부시 대통령 또한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 공간의 실내 온도를 상향 조정하고 백악관 직원과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실시, 정부 각 부처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책 보고 지시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웜 비즈 추진) 일본은 최근 쿨 비즈의 성공에 고무되어 '웜 비즈'를 도입,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쿨 비즈의 경제 효과)** 2005년 6~9월 실시된 쿨 비즈(Cool-Biz, 에어컨 냉방비를 줄이기 위한 여름철 간편복 근무 지침)로 56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000억 엔(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에 이름
- **(웜 비즈 추진)** 웜 비즈(Warm-Biz)란 겨울철 사무실 실내 온도 상한을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두껍고 따뜻한 근무복 차림 보급을 통해 極寒하자는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서, 쿨 비즈의 성공에 고무되어 추진되고 있음
- **(웜 비즈의 경제 효과)** 일본 정부에 의하면 웜 비즈의 온실효과 가스 감축량은 쿨 비즈의 4.4배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백화점이나 패션업계 등은 웜 비즈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방에 돌입하고 있어, 웜 비즈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됨

---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10.2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비즈니스에서의 정치

'정치적'이라는 단어에는 권모술수와 협잡의 냄새가 풍긴다. 그래서 정치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혐오감을 느끼며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적이란 얘길 들으면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과연 정치로부터 피해서 살 수 있을까. 한번은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정치가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배에서 막 내리자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제안했다. "이제 우리의 대표자를 뽑읍시다!" 두 사람이 모이는 순간,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치를 모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질문했다. "박사님, 인간의 정신은 원자구조를 밝혀낼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아직 원자폭탄을 금지시킬 만한 정치적 수단은 고안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정치가 물리학보다 어렵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정치력의 수준에 따라 성공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간과한다. 그것은 가게 점원에서 엘리트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결국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재능은 있으나 정치력이 없는 순진한 사람들이다.

정치력은 중요한 실력의 한 부분

경영학 교수이자 비즈니스 정치학 강의로 알려진 리어돈(Kathleen Kelley Reardon)은 그녀의 저서 <성공한 사람들의 정치력 101>(It's all Politics)에서, 어떤 직업이든 간에 업무 능력이 어느 수준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실력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원해 줄 결정적인 힘을 얻지 못하여 정치력이 능수능란한 동료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오늘날 직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풍경이다.

정치란 자신의 아이디어를 유리한 곳에 자리매김하고 적을 내편으로 끌

어 들이며 최종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도의 기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핵심은 '권력'보다는 '설득'에 있다.

정치 고수, 칼리 피오리나

휴렛 패커드의 여성 CEO 칼리 피오리나의 예를 보자.

그녀는 2002년 창업주의 아들 월터 휴렛과 자리를 다퉜다. 피오리나는 컴팩컴퓨터와 합병을 주장했고, 휴렛은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휴렛을 제외한 중역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합병이 되지 않았을 때 회사가 맞을 상황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는 놀라운 행동을 했다. 식사를 함께 하며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자신은 CEO에 연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남아 있는 중역들은 그녀가 떠난 뒤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결국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정치의 고수였던 것이다.

정치력 테스트

그럼 나의 정치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 보라. 'Yes'가 많을수록 당신의 정치적 지능은 우수한 것이다.

- 나는 내 자신과 내가 가진 생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내 아이디어에 대해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가?
- 적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가?
- 아이디어를 언제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아는가?
-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절대로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 없다.
미래는 너무도 빨리 닥쳐오기 때문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 독일 태생, 미국의 이론물리학자